

단과대별 편차 뚜렷 전임교원 부족이 대체적인 배경

1면에서 계속 →

전공필수 강의를 강사에게 수강한 호텔관광대학 소속 A 씨는 “앞선 전공 내용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수업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성모(산업경영공학 2025) 씨는 “공과대학은 대부분의 전공 강의를 전임교원이 담당해 수업의 질과 학과 커리큘럼의 연속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며 “전문성 있는 교육을 위해 전임교원이 전공필수 강의를 담당하는 기조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수진(행정학 2025) 씨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전공기초 강좌는 학생들이 전공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전공 지식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과별 사정 제각각 “전임교원 부족” 목소리

외국인 전용 강의 운영, 대학원 강의, 분반 수업 등 학과별 운영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취재 과정에서 전공기초·필수 강의를 강사가 담당하는 배경에는 대체로 ‘전임교원 부족’이 있었다.

국어국문학과는 지난 1학기 전공기초·필수 강의 10개 가운데 7개를 강사가 담당했다. 국어국문학과 이주희(언어학) 학과장은 “외국인 전용 분반 운영과 전임교원의 연구년, 정년퇴직 이후 교원 충원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현재는 전임교원 부족으로 모든 강의를 전임교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교수 충원은 학과가 아닌 대학 본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호텔관광대학의 경우 지난 1학기 전공기초·필수 강의 51개 가운데 18개를 강사가 담당했다. 호텔관광대학 서원석(호텔경영학) 학장은 “글로벌 Hospitality·관광학과는 전임교원의 안식년으로 지난 학기 모든 전공기초·필수 과목을 강사가 담당했다”며 “신설 학과 특성상 현재 교원 채용을 진행 중이며, 적은 수의 전임교원이 학부와 대학원 교육을 함께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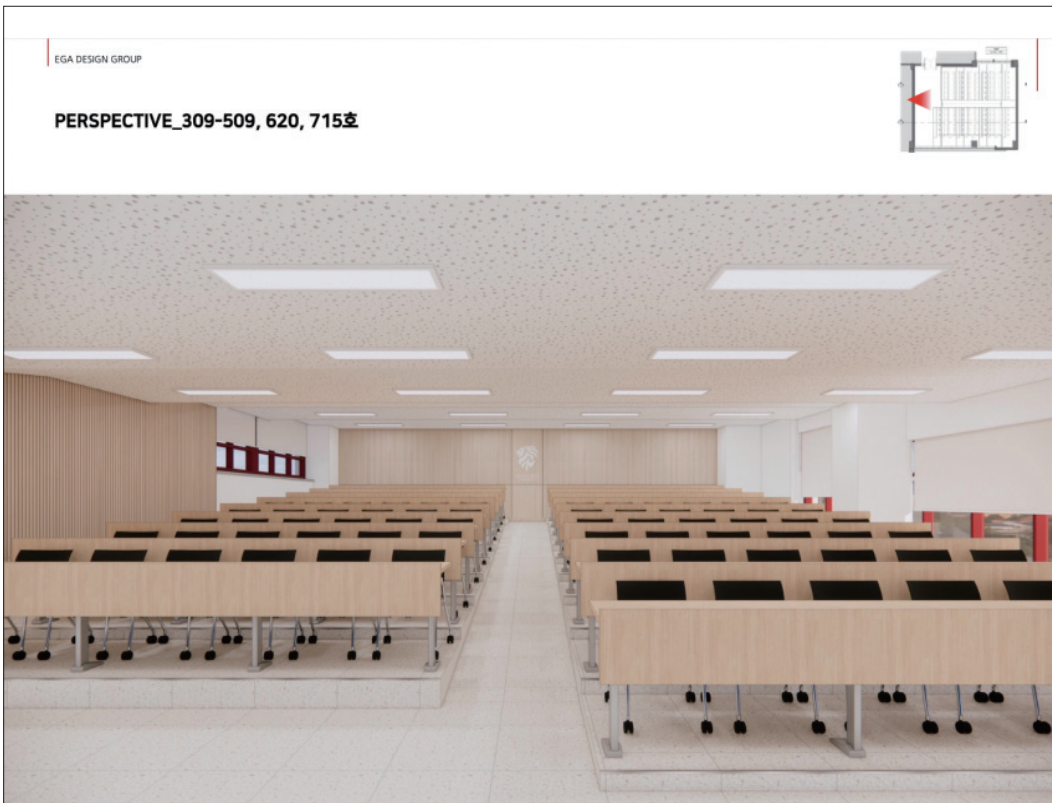
한편 예체능 계열의 경우 다른 단과대학보다 강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술·디자인대학 김진오(도시계획학) 학과장은 “세부 전공이 다양하고 분야 변화가 빠른 특성상 현업 전문가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예체능 계열의 높은 강사 비율은 단순한 교원 부족이 아니라 학문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단기간 교수 충원 어려운 상황 학과 차원 노력 병행해야

본부는 전임교원의 학부 강의 참여를 우선하되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제캠 김성수(우주과학) 교무처장은 “본부에서도 학부 강의는 전임교원이 우선 말도록 학장들에게 권고하고 있으나, 단과대학마다 학문적 특성과 운영 여건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강사 비율이 높아진 학과에 대해선 단과대학의 사정을 청취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학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사 의존을 벗어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는 전임교원 충원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학과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응용영어통번역학과 박해인(응용언어학) 학과장은 “모든 필수과목을 전임교원이 담당하기 어렵다면 핵심적인 전공필수 강의 일부라도 전임교원이 맡아, 학생들이 저학년 때 학과 교수들과 충분히 교류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학과가 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 충원과 같은 학교 차원의 구조적인 변화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며 “그 과정에서 학과는 학생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청운관 309·509호, 620호, 715호 계단식 강의실 리모델링 조감도. 좌석 수를 줄이고, 책상은 고정하되 의자는 이동식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사진=총무관리처 관리팀 제공)

서울캠 방중 리모델링 한창 대형강의실 책상·의자 전면 교체

오채원 기자 chaewonnida@khu.ac.kr

【서울】개강을 앞두고 교내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학생회관과 문과대학 공사는 지난해 발표된 교내 노후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인 ‘인프라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중앙도서관과 청운관은 별도로 진행되는 리모델링이다.

인프라 5개년 계획 2년 차 순환 학생회관·문과대학 리모델링

학생회관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3층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학생회관 보수는 2025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구역을 나눠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층 석면 철거와 전 층 화장실 공사가 이뤄졌다. 이번 2~3층 공사는 해당 계획의 2년 차 공정에 해당한다.

문과대학도 같은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는 8월 중순까지 2층과 4층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1, 3층은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남은 층이 이번 공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조성

되는 공간에 대해서는 “3층 강의실과 같은 형태로 리모델링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희기록관, 수장고 정비 열악한 보존·업무 환경개선

경희기록관은 지난 6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사무실, 수장고, 복도 등을 정비한다. 기록관 남기원 차장은 이번 리모델링에 “건물 자체가 오래됐고, 지난해 여름에는 폭우로 누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열악한 보존·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장 석면 텍스 제거, 벽면 도색, 곰팡이 제거, 이중창 설치, 바닥 교체 등이 공통으로 이뤄진다. 특히 404호 수장고는 중요기록물 수장고로 탈바꿈한다. 향온항습 등 보존 환경이 갖춰지고 시청각자료와 경희의 역사·이념을 상징하는 문서, 도서, 박물관 등이 통합 보관될 예정이다.

기록관은 중앙도서관 4층에 위치해 있다. 공사 기간에는 중도 제4열람실도 함께 휴실한다. 중도김지영 차장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방학 중 일부 기간 열람실을 운영하지 않는 방침이 있는데, 마침 기록관 리모델링 시기와 겹쳐 단계

됐다”고 휴실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운관, 계단식 강의실 개선 좌석 수 줄이고 의자 교체

청운관에서는 계단식 강의실 전면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장에 따르면, 307호, 309호, 407호, 409호, 507호, 509호, 620호, 715호 등 정원 140석 규모의 계단식 대형 강의실 8곳이 건축·전기 공사를 포함한 전면 리모델링 중이다. 2년 전 이미 리모델링된 207호도 출입문 쪽 일부 공사가 추가로 진행되며, 그 외 일반 강의실 30여 곳은 책상과 의자를 교체한다.

김 실장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항목에 계단식 강의실의 불편 사항이 다수 접수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고정형 책상은 폭이 좁고 좌석 간격이 협소해 가운데 자리에 앉은 학생이 자리를 뜨려면 옆자리 학생 전원이 일어서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좌석 수를 줄이고 책상은 안전상 고정을 유지하되, 의자는 이동식으로 교체한다. 김 실장은 “학생들의 신체적 피로도를 줄이고 수업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라 설명했다.